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상'

## 생약 추출 한방의약품 생산

## 태양광·LED 분야 급성장

## ■ '한국인스팜' 오규철 대표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에 있는 한국인스팜(주)은 지난 1996년 설립된 광주·전남지역 최초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증(KGMP) 기업이다. 양방은 물론 양방·한방의 장점을 살린 양한방 복합제, 생약에서 유효한 성분을 추출한 한방 등 347개 품목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4년 클린 사업장 선정, 2005년 벤처기업 인증, 2008년 전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09년 이노비즈 기업 지정, 올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됐다.

'인스팜'은 Innovation(기술혁신) + Natural(자연) + Pharm(약)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지난 27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원쪽부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공종현(주)도시환경이엔지 대표이사, 백홍영 한국인스팜(주) 총영구소장, 임충식 광주·전남중기청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을 이용한 개량신약 개발, '총명탕' 처방의 추출기술 개량을 통한 의약품 제형 개발 등 정부출연사업 14건(총 사업비 46억6000만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연세대 의과대학, 전남도 천연 자원연구원 등과 활발한 산·학·연 공동연구도 하고 있다.

특히 진도산 '울금'을 이용한 간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연구한 결과, 동물에서 효과가 입증돼 특허출원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거쳐 내년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오규철 대표이사는 "한국인스팜은 연구 인프라와 제조 인프라·판매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내달 광주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 국제 금융기구 개혁·안전망 마련 방안 토론

## 韓銀 부총재 공동의장에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들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내달 4~5일 광주에서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금융안전망(GFSN) 구축 방안을 토의한다.

이번 회의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두 달 앞 두고 각국의 입장은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논의와 정성을 조율하는 실무성격의 회동이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사공일(은)은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 4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첫날인 4일에는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며,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금융안전망(GFSN) 마련 방안을 토의한다.

회의가 끝난 뒤 5일 오찬 자리에서는 재무차관 '스티어링 그룹'(Steering Group) 회의를 별도로 열어 향후 세부 일정을 조율한다. /연합뉴스

5일에는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는 G20 참가국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들이 대표단을 파견하며, 기획재정부의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한국은행 김재천 부총재보가 공동의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회의가 끝난 뒤 5일 오찬 자리에서는 재무차관 '스티어링 그룹'(Steering Group) 회의를 별도로 열어 향후 세부 일정을 조율한다. /연합뉴스

## ■ '도시환경이엔지' 공종현 대표

적인 시스템을 갖춰 2종의 고정식 발전설비와 3종의 주적식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스템 공사를 맡은 태양광발전소만도 영광, 해남, 함평, 고흥, 화순, 장흥, 고창 등 30곳이 넘는다. 발전 규모로는 총 18MW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기업연구소를 설립,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나서 국내 특히 3건, 특허출원 9건, PCT(특허협력조약) 1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해외 4개국에도 특히 출원 했다.

도시환경이엔지는 녹색성장의 한 축인 LED 응용 분야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가로등·공장등·터널등 등 고출력 LED 조명을 위해 디자인과 방열의 특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년간 집중 투자, 지난해 말 광주 첨단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하이테크센터 3층에 LED 조립라인도 구축했다.

러시아와 일본, 동유럽, 동남아 등 5개국과 MOU(양해각서)·MOA(합의각서)를 체결,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2006년 ISO 9001 인증을 획득했고, 벤처기업(2006년)·이노비즈 기업(2008년)·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2008년)·특허스타기업(2009년)에 선정됐다. 올해 소형풍력 그린홀 100만호 사업자에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공종현 대표이사는 "LED·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LG 7300명 채용

LG그룹이 올 하반기에 대졸 신입 사원 4100명, 경력사원 1200명, 기능직 2000명 등 총 7300명을 뽑는다.

LG는 주력사업 및 미래성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고용창출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9월부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노트북,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각 계열사별로 하반기 채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 은행 가계대출 절반 이상 '주택담보'

## 2분기 273조 65.2% 사상최대 … 광주·전남 11조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째 커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의 주택담보 대출비중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2.5%포인트, 3.5% 포인트 상승했으며, 광주의 경우 가계대출의 60%에 육박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전액 418조9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 2000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2008년 2분기 60.9%였던 이 비중은 지난해 1분기 63.1%, 3분기 64.0% 등으로 8개 분기 연속 카졌다.

전국적으로 상호자축은행이나 신

융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면 주택담보대출은 341조 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0.1%에 해당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광주의 가계대출 잔액은 12조14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대출액(7조 2740억원)이 5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조56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대출은 모두 3조9330억원으로 37.2%를 기록했다. 전남의 주택담보 대출비중은 전년 동기 33.7%에서 37.2%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대규모 부실 사태에도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해야 할은 행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실제 주택 구매에 사용한 금액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기자 penfoot@yna.co.kr

## 기아차 임단협 '오늘이 고비'

## 8차 본교섭서 진전 없을때 노조 투쟁 나설듯

30일 열리는 제8차 본교섭이 기아자동차 임단협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가 이날 협상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3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투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기아차 노사는 따로 노사는 지난 11일 협상 테이블에 처음으로 마주 앉은 이후 27일까지 7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다. 예전과 달리 노사는 연일 마리팀 협상을 벌이는 등 본교섭에 적극적이어서 추석 전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노사는의 집중 교섭에 따라 단체협약 126개 조항 중 86개 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는 등 교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는 주말을 제외하고 6일 연속 교섭을 이어갔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허용지 않아 있다. 사측은 지난 27일 제7차 교섭에서 임금 7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460만원, 주식 80주 지급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최대 실적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심리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 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등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아차 노조는 31일 쟁의대위를 열어 투쟁방향을 정할 방침이어서, 30일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리는 8차 본교섭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04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 숫자	
5 20 21 24 33 40	3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566,659,375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8,589,604	26
3 5개 숫자 일치	1,400,888	1,273
4 4개 숫자 일치	50,000	63,559
5 3개 숫자 일치	5,000	1,050,065

## 코스피지수

1,729.56 (-45.98)

## 코스닥지수

461.52 (-18.86)

## 금리 (국고채 3년)

3.56% (-0.05)

## 원·달러 환율

1,196.60원 (+13.60)

※수치는 27일 기준 1주전과 비교

## 캠코, 내달 2일 공매투자 설명회

## DJ센터 … 선착순 100명 참가자 모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김태규)는 다음달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공매투자 설명회'에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선착순 100명이며, 참가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전화예약(062-231-3015, 3045) 해야 한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가자

들에게는 공매 교재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동향과 전망, 부동산 권리분석, 온비드 이용 방법 등 공매 관련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돼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836년 전린 그림사랑의 앤더슨

MUSICAL

Chicago

책 더 리퍼

조기예약 ABB 31일까지 10% 할인!

10% 할인! ~ 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김태규)는 다음달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공매투자 설명회'에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선착순 100명이며, 참가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전화예약(062-231-3015, 3045) 해야 한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참가자